



한국의 낙농은 어떻게 될 것인가?

이 만 재 동물자원과학회 낙농연구회장

이 글은 한국의 모든 낙농가들을 위하여 쓴 것이다. 그리고 이글이 한국의 낙농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담당자들이 진정으로 이 나라 농업과 낙농업을 존속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정책수립과 수행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쓴다.

한국의 낙농은 미국과 협상중인 FTA결과에 따라 매우 중대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모든 낙농인들이 주지하는 사실이다. 현재의 우유가격은 약 45%정도, 우유생산규모는 약 15%정도 감소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낙농관련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. 그러나 우유가격이 절반가량 떨어지는데 어떻게 낙농가가 살아남아 우유를 계속 생산하고 있을 수 있겠는가? 결국은 경쟁력이 높은 상위 30%정도의 농가만 살아남지 않겠냐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. 왜냐하면 현재 우유가격의 약 50%가 사료, 기자재와 약품, 농기구 등 직접 투입비용이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과 토지와 기타 이용자산에 대한 간접비용은 손실되어 낙농가의 소득은 한 푼도 건질 수 없기 때문에 생산성이 뛰어나고 경영능력이 우수한 상위 30%정도의 낙농가만이 그 만큼의 농업 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. 그 생존 낙농가들은 현재보다 세 배 정도의 우군규모를 늘리고 30%이상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국의 총 원유생산을 현재보다 약 15%정도 감소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.

세계의 낙농산업 추세는 생산증가보다 소비의 증가가 더 빠르게 지속되고 있어 장기적인 공급 부족과 가격상승으로 당분간 호황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. 이미 작년 후반기부터 세계의 유제품 시장은 품귀현상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국내 수입업체들이 물량확보에 혈안이 되어있다.

중국, 인도, 러시아 등 대규모 수요국가들의 전반적인 경제성장효과로 수요가 급증하고 주요생 산국인 미국, 오세아니아, 유럽 등의 생산증가는 더디게 진행되기 때문이다. 유제품의 국제교역 시세도 거의 두 배가 뛰었다. 그렇더라도 아직 그 가격수준은 한국의 값에 절반수준이다. 그러므로 FTA 이후 낙농산업에 미치는 결과예측 보고서들이 한국의 우유가격은 약 절반수준으로 떨어 질 것이라는 논리다.

결론적으로 수입개방 이후 한국의 낙농 생산구조는 약 2,000여 농가가 평균착유우 100두 규 모로 두당 10,000Kg의 우유생산성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. 이 농가들의 평균소득은 현재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. 원유의 판매가격이 현재보다 절반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. 하지만 이것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일 경우이다.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이 잇따라 진행된다면 사정은 또 다르다. 원유가격은 아마도 그 절반에서 30%가량 더 떨어지게 될 것이다. 일본과의 경우도 북해도의 원유가 약 60%의 싼값으로 들어 올 수도 있다. 유제품의 전체소비는 현재보다 더 늘어 나겠지만 그 물량은 모두 수입 유제품들로 메워진다. 유가공 업체들은 훨씬 더 다양한 원유와 원 료유제품들을 구입할 수 있게 되는 반면에 낙농가들은 선택의 여지도 없이 우유가격을 내릴 수 밖에 없다. 이러한 예상과 전망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. 너무나도 뻔한 숫자이기 때문이다. 수 학에는 답이 두개일 수 없는 것과 같다.

본인은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 모든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낙농생산기반의 유지보호정책 에 대하여 한국의 정부도 그러한 의지와 국가적 사명감을 발휘하여 원유의 수입을 재 규제하는 장치를 마련, 이를 모든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에 관철시키고 WTO에도 정식으로 통보하기를 건의한다. 유제품시장의 장벽을 완전히 해제한 나라는 낙농의 생산기반이 전혀 없는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밖에 없는 현상을 바로 이해하면 그러한 무역협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. 그 상대국은 현 실적으로 일본과 중국이다. 아직 그 두 나라와는 자유무역협정이 시작되지 않았고 원유에 관한 양보할 수 있는 국가들로 볼 수 있다.

미국과의 FTA결과에 따른 한국낙농가들의 대응준비는 위에 예상한 정도라면 그래도 상위 30%정도는 남을 수 있다. 그러나 일본과 중국에서 원유조차 수입이 개방된 채로 방치된다면 우 리는 영원히 우리가 생산한 신선한 우유를 우리와 우리아이들이 먹을 수 없게 될 것이다. 우리나 라가 선진국가로서 세계무대에 나서기 위해서는 세계 모든 선진국들처럼 낙농생산을 유지하고 신선한 우유를 국민들에게 자급시키는 기본정책을 재정비할 것을 정부 관료들에게 권고하는 바 이다. 물론, 그러한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대전제는 전국의 모든 낙농가가 어떤 형태든 하나 의 조직으로 반드시 뭉쳐야 한다는 것이다. 이제야 말로 한국의 낙농가들이 정신을 차리고 뭉치 지 않으면 자멸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. ☹